

2015 Spring

Vol. 84

# 희망미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사회적 책임과 희망



이건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추웠던 겨울이 언제였는가 싶게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럽고 나무들은 푸른 새싹을 내보입니다. 자연의 변화는 언제 봐도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이 멋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은 아름다움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움츠러들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게 혹은 어둡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안판사가 굶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빵 하나를 훔친 할머니에게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노령에 초범이어서 훈방을 예상했던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논고는 이랬습니다.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친 건 이 할머니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 할머니를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나에게 10달러, 방청객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는 자신의 모자 안에 이렇게 모인 57달러 중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를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살기 좋은 사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봄처럼 2015년에도 희망과 웃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연말이면 곳곳에서 시상식 소식이 들려옵니다. 2012년 재단에서 주최하는 부산지역 치료종결 파티에서 제 딸 보경이도 상장과 함께 소아암 치료종결메달을 당당히 받았습니다. 그해 보경이의 치료종결과 함께 그 어떤 시상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시상식이 저희 가족에겐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교수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시작된 2014년 치료종결파티! 어린 시절부터 치료받을 때의 모습, 그리고 당당히 이겨낸 현재의 모습들! 동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던 우리 천사들과 부모님들... 치료해 주신 교수님께서 직접 걸어준 메달을 걸고 화이팅을 외치며 케이크를 자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조용히 맡은 역할을 수행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카메라로 기록했던 저는 김보경 아빠입니다.

보경이가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후원과 기부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대가 없이 내놓음'  
"오늘은 특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보경 아버님께서 행사 촬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멋진 추억을 남기고 싶은 가족분들은 아버님께 마음껏 부탁하세요~"

보경이와 아내가 살짝궁 웃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줍니다. 참가가족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제 카메라를 보며 브~이를 그려줍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카메라 속 이야기가 이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보경이가 아프고 난 뒤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자리 있었던 모든 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한 살부터 스무살까지 소아암을 이겨낸 우리 천사들을, 많은 재능기부자들 중에서 가장 큰 박수 소리를 받은 이유를..... 그리고 제 딸 보경이의 기뻐하는 눈빛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보경이가 좋아합니다. 아내가 행복해 합니다.

부족하나마 기부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제게 있는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 보경이 아빠로 잘 알려진 김성태 사진작가는 2013년 1월부터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 2015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요사업 추진일정

일별	전국	쉼터 및 센터별
1		언어치료 시작(부산)
2	완치자 활동가 모집 체력증진 지원	설날행사
3	학습 지원 및 가족관계강화 지원 시작	
4	호호상자(향균물품) 배포	희망나무심기(서울, 4/1) 사별가족 지지모임 야외체험(대구, 부산, 전남)
5	생활환경개선 지원	어린이날행사 완치기원 연날리기(서울, 5/9) 야외체험(서울)
6	치료종결자 자기성장프로그램	
7		예술체험(대구, 전남)
8	완치자 장학금 지원 형제캠프	
9	문화체험(9/8~9)	추석행사
10		예술체험(부산) 한사랑 1박2일(대구)
11	치료종결 기념메달, 축하선물 지원 2016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선발	예술체험(전남)
12		크리스마스행사 치료종결잔치(부산) 홍명보자선축구대회(서울)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중사업

- 경제적 지원 : 이식비, 치료비(이식 시 수혜자 부담금 포함), 재활치료비, 간접치료비, 헌혈증
- 정보 지원 : 교육자료 배부(총 27종),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아암교실(www.kclf2.org)', 사별가족을 위한 '하이파이브(www.highfive.or.kr)' 운영
- 전문심리상담 : 미술(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남), 놀이(서울, 대구), 음악(부산)
- 소아암 방문교육 : 학교속으로 고고, 우리들의 친구 다람이(부산)
- 가발 지원 : 학령기 이상 연령의 환아 및 치료 후유증으로 모발이 나지 않는 치료종결자 대상
- 용감한 아이(I) 통장, 나눔상자(이식준비물품) 지원

\* 사업별 세부안내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kclf.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음소아암센터(부산) 신규 프로그램

### ▶ 음악 전문심리상담



소아암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스스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치료의지를 북돋아줍니다.

- 지원내용 : 음악심리상담, 최대 48회기 / 주 1회
- 지원대상 : 만 1세~만 19세 미만의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단, 치료중이거나 치료종결 후 10년 이내인 자)
- 지원과정 : 상담 -> 면담 -> 지원결정 -> 지원시작

### ▶ 언어치료



암 발병 후 말,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어린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최대 192회기 / 주 1회~2회
- 지원대상 : 만 2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단, 언어발달검사 시행 후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지원과정 : 상담 -> 언어발달검사 -> 지원결정 -> 지원시작

\* 신청 및 문의 : 051-635-7671 /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81-1

## 긴 시간의 끝, 다시 만난 멋진 세상!

### 이승주

1994년생  
2006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2009년 치료종결  
2015년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재학 중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9년 치료종결 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한 이승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2006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가 환아, 그리고 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2006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3월에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줄 알았지만, 어린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 저는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과 발의 신경 손상이었습니다. 글자를 제대로 쓸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백혈병 진단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제 신경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병원생활과 통원치료를 하면서 제가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이 되었던 건, 제 곁에서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투병 중인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이 저보다도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 부모님께서서는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힘든 내색 한 번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발병부터 완치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저에게 가족의 응원은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집중치료가 끝난 후, 저는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면역력과 약간의 장애 때문인지 부모님은 저의 학교 복귀를 매우 걱정하셨지만, 부모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제 학교생활은 정말로 멋지게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지루했던 병원생활과 비교해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병원생활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꿈같은 일들이었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제가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하다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

니다. 친한 친구들은 저와 같이 다닐 땐,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잊지 않고 저와 발맞춰 걸어주고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의 행복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직 조금은 불편한 손과 다리지만, 저는 예전처럼 다시 또 래들과 그림도 그리고, 밴드활동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투병생활로 인해 어긋나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저는 당장 오늘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들 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투병생활동안 잊고 있었던 장래희망과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또래 친구들이 그렇듯 똑같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로를 차츰 잡아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내적인 갈등 또한 많이 겪었지만 무사히 원하던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지금은 제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가끔 제가 아팠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혼자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그때가 마치 꿈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엔 정말로 길고 길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겪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 같던 그 때의 기억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으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해주는 그 무언가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위의 누군가가 다리가 왜 불편한지, 학교를 왜 1년 늦게 다녔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이런 질문이 저의 상처나 괴로웠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할 것만 같지만 웬지 모르게 저는 이런 질문에 담담하게, 오히려 조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군요. 그건 긴 투병생활의 경험이 제게 남긴 것이 단지 아프고 괴로웠던 기억만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긴 투병생활은 분명 괴롭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겪어내야 할 그 시간을 단지 고통의 시간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간의 끝에 펼쳐질 멋진 세상에 닿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친구들과 그 가족 분들이 꼭 멋진 세상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함께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

안녕하세요!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 진행되는 경북대병원 만들기 수업 진행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 배수현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업 때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 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이 되어 처음 가져본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 우연히 한사랑의집을 알게 되었고, 재밌고 좋아하는 일로 봉사를 할 수 있단 생각에 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부모님들께는 잠깐의 휴식시간을 드리는 만들기교실의 취지가 와 닿았습니다.

예전에 긴 입원생활을 해본 저로서는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치료시간과 병원 특유의 분위기를 알기에 장기간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안스럽고 한편으론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잠시 잊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거기에 서서히 빠져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처음에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던 아이들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다독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면 어느새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을 내보이며 자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성취감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는 다짐이 듭니다. 정리를 같이 하며 그간의 근황들을 소소히 나누다 보면 아이들의 생각에 놀라기도 하고 저도 그때의 나로 돌아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며 동심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활동을 마치고 나면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와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대신 그로 인해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함께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 배수현 자원봉사자는 2012년 11월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나를 이끌어주는 행복한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생각

그림 그리기는 우리 소아암 친구들이 병원에서도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하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좋아하는 그림으로 재능나눔을 하는 이동희 님을 소개합니다.  
이동희 님은 '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 일러스트 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인을 통해 처음 재단에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러스트를 통해 누군가에도 도움이 되고 나눔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슈퍼맨 캠페인과 소식지 표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 혹시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손 가는 대로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레파스, 색연필 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시작해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술 도구 각각의 장점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림 실력이 쌓일 거 같아요.

### 소식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제가 인상 깊게 본 그림책을 세 권을 추천하고 싶어요. '마이블', '우리 누나 우리 구름이', '아카시아 파마'입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주변 친구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이 애뜻하게 담겨 있어 따스함이 마음속에 맴돌게 되는 책인 거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누구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오기 마련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기가 조금 일찍 온 거라 생각되어요. 그때마다 항상 나를 이끌어주는 건 행복한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와 우리 가족, 친구들이었던 거 같아요.



▶ 희 님의 일러스트 구경하러가기  
희스튜디오 [www.heestudio.com](http://www.heestudio.com)  
섬핑인마이하우스 [www.somethingin.co.kr](http://www.somethingin.co.kr)

\* 이동희 님은 2010년부터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

## 한사랑의집에서는

아쉬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연말연시! 씬터에서는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 마음의 힘

지난 12월, 서울과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화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요리하는 마술사'를, 대구에서는 뮤지컬 '점프'를 보고 왔습니다. 멋진 공연으로 오랜만에 가족끼리 함께 어울린 시간이 한 해 동안 수고한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 함께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아 병원과 씬터에서는 아이들의 함박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파리크라상 임직원분들과 함께 소원트리를 만들고 맛있는 쿠키나눔으로 달달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남, 대구, 부산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입원치료 중인 어린이들의 기분 전환을 돕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윤여준 완치자가 깜짝산타로 병동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Special Thanks to 경기고등학교동창회 / 범한산업 정영식 대표 / 외환은행나눔재단 / 파리크라상 / 현대리바트

## 새해엔 행복이 가득할거

치료 때문에 병원에서 설을 맞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을 위한 설맞이 행사가 지역별로 실시되었습니다. 환자복 대신 오랜만에 알록달록 한복도 입어보고, 함께 모여 웃놀이와 투호놀이를 하고, 복주머니를 만들며 다가오는 설날을 먼저 느껴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본 프로그램은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지원 결정  
환아

2014. 12.~2015. 2.

이식비	
<b>고려은단</b>	
하○서(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b>농업협동조합중앙회</b>	
배○완(만성육아중질환)	500만원
<b>램리서치코리아</b>	
김○희(골수이형성증)	1,000만원
장○연(신경모세포종)	1,400만원
<b>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b>	
정○윤(중증재생불량빈혈)	2,000만원
<b>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b>	
김○은(배아세포종)	1,500만원
<b>우체국공익재단</b> 각 500만원	
김○희(골수이형성증)	
배○완(만성육아중질환)	
<b>이베이코리아 옥션</b>	
홍○혁(황문근육종)	2,000만원
<b>KB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b>	
변○유(수모세포종)	1,000만원

재활치료비	
<b>드림팩토리클럽(이승환)</b>	
김○경(뇌종양)	300만원
소○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윤○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	4,282,872원
<b>삼성물산</b>	
장○해(신경모세포종)	3,137,738원

<b>액센추어</b>	
손○이(급성림프모구백혈병)	2,595,374원
<b>익명 후원자</b>	
권○현(신경모세포종)	300만원
김○호(버킷림프종)	200만원
노○혜(신경모세포종)	400만원
박○환(수모세포종)	400만원
조○정(수모세포종)	400만원
<b>하나대투증권</b>	
하○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	1,170,914원
<b>홍현의 후원자</b>	
박○환(수모세포종)	5,109,910원
<b>KB국민은행</b>	
곽○배(배아세포종)	2,494,210원

치료비	
<b>농업협동조합중앙회</b>	
노○규(유잉육종)	300만원
<b>드림팩토리클럽(이승환)</b>	
김○연(악성림프종)	1,500만원
<b>램리서치코리아</b>	
고○준(신경모세포종)	310만원
<b>배재열기금</b>	
황○주(재생불량빈혈)	100만원
<b>삼성물산</b>	
김○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523만원

<b>삼성전자로지텍</b>	
홍○림(신경모세포종)	800만원
<b>새마을금고중앙회</b>	
최○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	513,964원
<b>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b>	
김○연(성상세포종)	3,513,090원
김○연(악성림프종)	1,300만원
노○미(수모세포종)	2,779,250원
원○해(신경모세포종)	500만원
<b>사이니 온유 팬연합</b>	
장○우(신경모세포종)	500만원
<b>서울마주협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b>	
노○미(수모세포종)	3,834,730원
<b>신한금융지주회사</b>	
김○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방○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유○명(중증재생불량빈혈)	2,175,050원
<b>액센추어</b>	
홍○혁(황문근육종)	500만원
<b>우체국공익재단</b> 각 500만원	
고○준(신경모세포종)	
이○지(중증재생불량빈혈)	
<b>이베이코리아 옥션</b>	
이○훈(황문근육종)	500만원
<b>익명 후원자</b>	
현○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	400만원
<b>익명 후원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b>	
김○경(뇌종양)	7,396,090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  
이○지(중증재생불량빈혈) 541,859원

**토탈소프트뱅크**  
성○윤(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한국증권금융,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준(신경모세포종) 490만원

**한마음혈액원**  
김○음(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2,764,000원  
신○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효성 연양공장**  
김○정(급성골수성백혈병) 500만원  
김○연(성상세포종) 400만원  
손○경(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증) 500만원

**KB국민카드**  
이○지(중증재생불량빈혈) 7,361,004원

**KB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수(악성림프종) 500만원  
양○우(호지킨림프종) 200만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삼성물산** 각 100만원  
김○희(골수이형성증)  
김○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서○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훈(황문근육종)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지(중증재생불량빈혈) 100만원

**우체국공익재단**  
이○찬(급성골수성백혈병) 100만원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홍○혁(황문근육종) 100만원

**효성 연양공장**  
김○정(급성골수성백혈병) 1,251,880원  
하○현(급성골수성백혈병) 100만원

**2PM 준호 팬페이지 누너건**  
이○원(급성골수성백혈병) 125만원

**B.A.P 종업 팬페이지 Moonlight**  
한○서(교모세포종) 10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변○유(수모세포종)  
원○주(방광암)  
이○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  
조○훈(랑게르한스조직구증식증)  
하○람(급성림프모구백혈병)  
허○림(신경모세포종)

**양진의료재단**  
이○규(중자세포종양)

**전부건(개인후원자)**  
전○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

**태진인터내셔널**  
문○형(수모세포종)  
신○섭(재생불량빈혈)  
차○빈(신경모세포종)

**한엔터테인먼트**  
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신○미(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엽(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한전KPS**  
박○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효성연양공장**  
이○지(신경모세포종)  
차○화(골육종)  
천○서(급성골수성백혈병)

**가발**

**하이모**  
강○래(비호지킨림프종)  
김○나(골육종)  
한○섭(급성골수성백혈병)

**홍명보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수(수모세포종)  
이○연(악성림프종)  
최○석(악성림프종)

>>> KCLF

# 신규 후원자 소식

2014. 12.~2015. 2.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기후원

강미지 고효석 구경민 권지수 권혜연 김강현 김경호 김대기 김미경 김민지1 김민지2 김병호 김보경 김세영 김세진 김수빈 김순화 김애숙 김정미 김주희 김지현 김채연 김해성 김현민 남규현 노재희 마혜경 문단비 박금화 박명희 박미혜 박민지 박선주 박세준 박소연 박소정 박인철 박지애 박창주 박현희 방자은 배황진 변기천 봉수현 서미옥 서유건 손지영 송진우 신건희 신재영 안승호 안창우 양선정 양철호 엄서현 예원자 오가영 오성균 오세갑 유기호 유 환 윤경훈 윤예준 이법열 이별님 이성국 이소미 이수연 이숙영 이승현 이영상 이용우 이재순 이정미 이종욱 이주영 이진숙 이초연 이흥범 임정은 임혜진 임효기 장미화 장세인 장정순 장판규 장한주 전경천 정선근 정유진 정중수 정진용 정태식 정현아 조상래 조수진 조현미 조혜란 주성원 최경혜 최달해 최혜림 편상철 황석현 황희진 엔터커뮤니티 주원시스템

## 일시후원

고 술 고숙희 고유정 권 영 김가현 김기웅 김기한 김동기 김수민 김수빈 김영재 류혜림 박다혜 박명희 박선혜 박재우 박찬민 박현식 백소연 산타콘 서성철 신경미 신동민 신솔희 신혜민 심상란 안수연 안창범 양유미 엄수진 여연주 오재욱 원하나 유지한 이나미 이미화 이민숙 이선혜 이재만 이정옥 이혜영1 이혜영2 장수연 장진을 전동진 전찬희 정주현 정희주 조영근 한세연 nice노조권기 대전둔원중 덕풍초등학교 롯데리아HRD 신광초등학교 웨일즈그린 하나님의은혜 하나은행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14학번

## 후원물품

김동현 굴 대구우체국 김치 롯데카드 매트,도서 모두투어&더팩스커뮤니케이션 냉장고 양지유가족 굴 외환은행나눔재단 우표 이지혁 음료수 익명 쌀,한과,과일 전현우가족 김치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조현서가족 사과즙 파리크라상 프로그램비 허조원가족 굴 호수의나라수오미 물티슈

## 헌혈증 (장)

강민(17) 고봉석(30) 고혜란(5) 권오승(11) 김상준(10) 김승현(10) 김영호(1) 김윤선(8) 김은정(3) 김진희(4) 김진희(5) 노대섭(18) 명창윤(32) 민창기(37) 박건문(6) 박기식(10) 박은총(449) 배상민(4) 손예림(208) 신의준(100) 안창범(1) 엄수인(1) 오인택(25) 위대한(10) 유종석(20) 유태현(15) 이보배(20) 이은미(1) 이종행(16) 익명(28) 임정균(5) 임중근(11) 임지현(4) 장민우(50) 장태호(20) 장현태(24) 정무경(93) 정지용(32) 정하윤(10) 조남일(31) 주아람(14) 최윤정(6) 최의탁(7) 한준식(9) 현사모(35) 홍용선(1) 황연정(5) 황인성(50) 황현지(114) 가좌고등학교(156) 경희대학교 새내기들 모여라~★(16) 공무원연금공단(100) 김천타이어맨(18) 노현재 · 노현서(31) 단국대학교(2000) 뚜레쥬르 평택청북점(51) 미래에셋생명(210) 미디어월버룩시장(585) 비알코리아(100) 새천년카를리닉(14) 서울사이버대학교(50) 세계사이버대학교(100) 송곡고등학교(142) 씨게이트코리아(67) 아이시티안과(103) 우하하공동체(10) 육군 제2경비단(54)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106) 제이기타스토리 실용음악학원(18) 착사모(25) 칠성초등학교 46회 동기회(7) 코로롱위터엔에너지 중랑사업소(19) 파리크라상(200) 평창지역자활센터(77) 피나용(44) 플레이어더부산(150) 현대엘리베이터(142)

##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 협 : 029-01-176943  
새마을금고 : 9002-1557-6919-6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 체 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KCLF 희망소식

## 치료종결파티 '나눔'



2014년 12월 30일. 어떤 시상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시상식. 치료종결파티 '나눔'이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치료를 마친 많은 아이들을 대표하여 18명의 어린이가 상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오카리나 축주를 멋지게 해준 허지수 양.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진행해 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HANN엔터테인먼트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위촉·종결식

12월 20일,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위촉 및 종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소아암 어린이를 대표하여 소아암을 알리고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한 김진우, 박소연, 조현서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는 박소연, 백이영, 최지후 어린이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치료과정에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앞장서는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의 활동,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에 서는 퇴직공무원이 연금나눔으로 조성한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 이노션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있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그룹 이노션에서는 지난 12월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KCLF 희망소식

## 램리서치코리아 크리스마스상자



램리서치코리아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 '크리스마스상자'를 250명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선물 포장 및 상자 배송작업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임직원이 함께 모은 후원금과 헌혈증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 모두투어



모두투어는 임직원이 함께 뜬 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전달하였습니다.

##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은 임직원이 함께 모은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 삼성전자로지텍



임직원 급여의 일부분을 모은 사랑의 후원금으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지텍에서는 삼성전자로지텍을 포함, 관련사들이 참여하는 '분식나눔'을 통해 점심금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함께 기부했습니다.

##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FC와 회사가 함께 1년 동안 모은 'FC사랑실천기부금'과 헌혈증을 전달하였습니다.

## 태진인터내셔널



루이까포즈 태진인터내셔널은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 새천년카클리닉



새천년카클리닉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과 헌혈증을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호수의나라 수오미**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행복나눔기부금'과 함께 순둥이 물티슈를 전달하였습니다.

**문금용 후원자의 마지막 숙제**



문금용 후원자는 평생 절약하며 모은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장학금으로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2014 치료종결자 지원**



재단에서는 해마다 소아암 치료를 마치는 어린이들에게 치료종결 기념메달과 함께 축하선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2개 병원, 719명의 어린이들이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힘든 치료를 이겨낸 어린이들의 내일을, 치료 중인 환아와 가족들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15 해피휠런 체력증진 지원**



장기간의 치료로 몸이 약해진 소아암 어린이의 체력 향상을 돕기 위해 운동기구를 지원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으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올해도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스포츠토토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우체국공익재단 위탁공익사업 선정**

우체국공익재단은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통한 소아암 환자 지원사업'을 2015년 위탁공익사업으로 선정, 총 31,300만원을 후원합니다.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기금 전달**

김귀남·김봉님, 단타이핑, 메리츠화재, 미디어윌버룩시장, 서울마주협회(오상철 마주, 박복용 마주), 스포츠토토, 신한은행, 야놀자, 정영식, 한국감정평가협회, 환인제약, 현대엘리베이터



# KCLF 희망소식

##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2PM 준호 팬페이지 누너건, 온더스테이지, The days에서는 1월 25일, 준호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B. A. P 팬페이지 MY B. A. P에서는 데뷔 3주년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B. A. P 종업 팬페이지 'Moonlight'와 '겨울달'에서는 2월 6일, 종업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과 헌혈증을 보내주었습니다.
- 고숙희님께서 GOT7 JB의 1월 6일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김보통님께서 GOT7 영재의 스무 살을 기념하여 앨범과 향균마스크, 후원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유아인 갤러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후원금과 헌혈증을 보내주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에이핑크 갤러리에서는 2월 10일, 손나은의 생일을 기념하여 헌혈증을 전달하였습니다.
- 블링블링 강소라 공식팬카페에서는 2월 18일, 강소라의 생일을 기념하여 헌혈증을 보내주었습니다.
- 비스트 손동운 팬페이지 동치미 서포터즈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비스트 앨범을 기부했습니다.
- 샤이니 온유 팬 연합에서는 12월 14일, 온유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틴탑 천지 팬페이지 '네가 나타난 10월은 따뜻했어'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향균물품, 멸균장갑, 어린이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 헨리 팬카페 Strings-K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여 헌혈증을 전달하였습니다.



## 완치자활동가를 소개합니다!

2014년 5월, 10명의 완치자 활동가 모임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소아암교육 및 형제캠프 두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였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한 활동이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이 배우고 느꼈다고 말하는 활동가들!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치료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완치자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활발해질수록  
환아와 가족들에게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_ 김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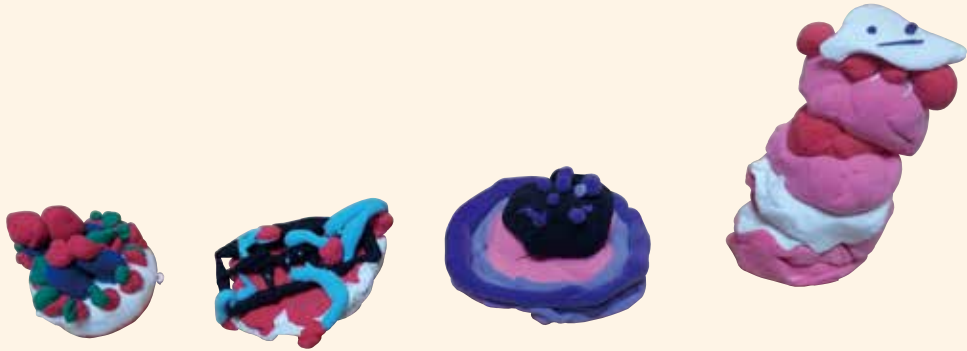
고마움을 받기만 하던 환아에서 환아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환아들이 건강해져  
저희와 같은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_ 김지호

형제캠프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형제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_ 김병훈

환아와 가족들, 그리고 완치자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만한 활동으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_ 장진영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잊히는 기억,  
마냥 행복했던 기억은 아니지만, 나를 한 뼘 더 성장하게 한 특별한 경험!  
완치자로서 치료 중인 환아와 가족들에게 힘을 전하고 싶은 완치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 대 상 : 만 18세 이상의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종결자
- ▶ 활동내용 :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나의 치료 경험을 나눕니다.
- ▶ 지역별 신청문의 : 서울 02-766-7671 / 광주 061-375-7671  
대구 053-253-7671 / 부산 051-635-7671



병원에서 진행되는 집단미술치료 시간에 참여한 네 친구의 작품입니다.

오전에 함께 한 생일잔치 때문일까요?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의 생일케이크를 만듭니다.

“선생님, 저는 케이크를 높게, 높게 만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케이크 위에 딸기를 많이 놓고 싶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으려니까 잘 안돼요.”

“흠, 저는 남자니까 분홍색 말고 다른 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스스로를 위한 생일케이크를 만들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